

## 정혜엘리사벳

ST.JEONG-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://www.sackcc.net

주임신부: 김원현 베드로 916-207-4806 본당부제: 김상돈 도미늬 916-580-8519 사목회장: 김도철 베드로 916-690-6555

연령회장: 친중구 안투니오 916-747-8431

ST.JEONG-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. Sacramento, CA 95826 사무실:916-368-9204

오늘의 말씀 제1독서 욥기 7:1-4.6-7 제2독서 코린도1서 복음 마르코 1:29-39

●말씀 46시간?

스위스의 80살 먹은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재미 삼아 자신이 써 온 시간 들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. 그중에서 대표적인 시간들을 꼽아보면아래와 같습니다.

잠자는 데 쓴 시간 26년,

일한 시간이 21년,

식사 시간이 6년,

약속 기다리는데 5년,

불안과 조바심으로 낭비한 시간이 5년,

세면 시간 228일.

봉헌자

넥타이 매는 데 18일.

담배 불붙이는 데 12일,

아이들과 노는데 26일,

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은 총 46시간 뿐..

46시간? 80년을 사신 분이 기억하는 '기쁘고 행복했던 시간'이 고작 46시간이라는 말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.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쁘게 산 시간에 비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지 않은 건 우리에게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삶의 진짜 기쁨과행복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간을 배분해보는 건 어떨까요? 1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시간을 쓰길 잘했구나,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말입니다.

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침 즉 복음을 선포하신 후 일행(시몬)의 집에 들러 식사를 하십니다. 그리고 아픈 여인(시몬의 장모)를 보시고는 고쳐주십니다. "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"는 "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."라고 오 늘 복음은 예수님의 밤 시간을 전합니다. "온 고을 사람들이..."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니 밀려드는 인파에 아마도 밤늦게까지 일하신 듯합니다. 그러나 "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곳으 로 가시어..." 기도하십니다. 예수님의 새벽기도나 밤중기도는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요. 그리고 또다시 길을 떠나십니다.

오늘 예수님이 갈릴래아 하루 일과를 보면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은 '참 바쁘시겠구나'입니다. 낮에는 회당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깜깜할 때 외딴곳을 찾아 기도까지 하셨으니 감히 엄두가 나지않는 강행군입니다.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쁜 일생 속에서 항상 '기도로 중심을 잡아야겠구나'입니다. 그 전날 흥행에들뜬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오지만, 주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중심을 잡으셨기에흔들림 없이 그 전날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 사명을향해 길을 떠나십니다.

80살 노인의 지난 시간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것을 권고합니다. 예수님처럼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아야 바쁨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더 많이 내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?

일 자	전 례 력	미사시간	우리들의 정성(지난주)			
2월6일(화)	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	오후7시30분	주일헌금 교 무 금	\$ 1,362.00 \$ 1,470.00		
2월7일(수)	연중 제5주간 수요일	오전 8시	자 선 비 성소후원	\$ 50.00 \$ 40.00		
2월8일(목)	연중 제5주간 목요일	오후7시30분	성 물 방	\$ 155.00		
2월9일(금)	연중 제5주간 금요일	오후7시30분	기타	\$ 567.00		
2월10일(토)	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	오후7시30분	합 계	\$ 3,644.00		
2월11일(주일)	연중 제6주일			학생: 31명 성인:179명		
교무금 보험지 지영욱(1-3)한삼.김옥동.최재진(1-2)김정홍(9-11)김호성(1)윤재경(2)						

####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

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들인 윤지충과 권상연은 조 상제사 문제가 발단이 돼 순교한 이들입니다. 그러나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 '중국 의식(儀式)에 관한 훈령'을 통해 조상제사에 대해 관용적 조치를 취하면서 200 년 전과 달리 조상제사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사회 문화적 풍속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. 1995년에 발효된 한국 천주교회의 지역교회법인 「한국천주 교 사목지침서」에서는 제례와 관련해 이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"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,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,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,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.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"(제134조 1항).

또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2년 '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'을 승인,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야 하는 신자 가정들이 이 예식서 기준으로 제사(제례)를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'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'

#### 가정 제례 준비

제례 전에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한다. 상차 림은 형식을 갖추기보단 소박하게 평소 가족이 좋아하 는 음식으로 차린다.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(고인) 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.

#### 예식 순서

#### 1. 성호경

#### 2. 시작 성가

성가 50번(주님은 나의 목자), 54번(주님은 나의 목자), 227번(나는 부활이요생명이니라), 436번(주 날개 밑), 462번(이 세상 지나가고)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.

#### 3. 시작 기도

가장은 오늘 거행하는 제례의 취지를 설명한 후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바친다.

(설이나 한가위 명절에는)

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.

우리는 오늘 설/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"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.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,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"(요한 11,25-26)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시다.(잠시 침묵 후에)

+ 주님,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 ( )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, 성인 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.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◎ 아멘.

#### 4. 성경 봉독

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본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 마태 5,1-12(참 행복),요한 14,1-14(아버지께 가는 길),로마 12,1-21(그리스도 인의 새로운 생활과 생활 규범),1코린 13,1-13(사랑),에페 5,6-20(빛의 자녀)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.

- 주님의 말씀입니다.
-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#### 5. 가장의 말씀

가장은 조상(고인)을 회고하면서 가훈, 가풍,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.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안에서 성실 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.

#### 6. 분향과 배례

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.

- 7. 위령 기도: (가톨릭 기도서 74-79면) 위령기도 후 '주님의 기도', '성모송'을 각 각 한 번씩 하고 기도를 마친다.
- 8. 마침 성가: 위의 2번에 있는 가톨릭 성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.
- 9. 음식 나눔: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.

(참고: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/평화신문)

#### **◉오늘의 미사지향** (미사신청:전례부장 916-990-6531/사무장 909-573-5322)**◉**

구분	지 향	봉 헌 자	구분	지 향	봉 헌 자
연	합동 위령 미사				
			·		

### ◉공동체 소식 (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. - 요한 17:21)

1구역(FE).2구역(FO).3구역(PC).4구역(NH).5구역(GF).6구역(RC).7구역(RT).8구역(NC).9구역(EG).10구역(DW)

#### <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>

#### 1. 초축복식 (주님봉헌축일)

일시: 4일(주일) 미사중에 있습니다. 1년동안 성당에서 사용할 **제대초 봉헌**해 주시고 개인이 사용할 **기도초**는 성물방에 **신청**바랍니다.

#### 2. 설 합동위령미사

일시: 4일(주일) 오전11시 교중미사중 당일에는 오전9시 미사가 없습니다

- ✔미사 20분전부터 합동연도가 있으며 미사중에 가족분향이 있으니 함께 자리에 앉아 주세요.
- ✔미사후에는 친교실에서 점심식사와 구역대항 윷놀이와 제기차기가 있습니다
- ✔교우 여러분들의 **협조를 부탁합니다!!** 미사후 친교실에서 식사후 게임이 있으므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교우여러분들의 자발 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#### 3. 2월 구역미사 (1-1구역)

일시: 9일(금) 오후7시30분

장소: 안성수 예로니모. 김나윤 프리스카 (자택)

#### 4. 단체활동 / 구역모임

복 지 부: 4일(주일) 오전8시반 홈리스음식봉사 대 건 회: 4일(주일)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(대상:60~69세 남성교우)

2구역: 10일(토) 오후6시반 김현준 미카엘(댁)

3구역: 18일(주일) 교중미사후 루카방

5구역: 16일(금) 오후6시 이윤상 사도요한(댁) 6구역: 18일(주일) 오후5시 김평옥 모니카(댁)

7구역: 18일(주일) 교중미사후 마테오방 8구역: 18일(주일)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: 18일(주일) 교중미사후 친교실

## 5. 성지가지 회수: 11일(주일) 까지

게시판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재의 수요일 미사 (사순절 시작)

일시: 14일(수) 오후7시30분. 단식과 금육 미사중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당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.

#### 7. 부활 판공성사

기간: 재의수요일~성목요일 만찬미사 전까지 사순시기동안 미사 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과 함께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

#### 8. 본당 꾸리야 모임

일시: 18일(주일) 교중미사후. 엘리사벳방 각 쁘레시디움 4간부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.

#### 9. 사랑의 급식 (리노공소 후원)

일시: 18일(주일) 모든미사후

담당구역: 10구역 메뉴: 카레 가격: \$5/1인

#### 10. 2024년도 도서관 이용 안내

개관: 매월셋째주 (2월~11월) 도서대여기간: 1개월 (연장가능)

문의: 교육부 부장 박명혜/ 차장 김수용

#### 11. 연도 및 장례미사

일시: 10일(토) 오전9시30분. 성당 선종하신 McWilliams Doug (김순녀 도미질라 남편)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장례미사 참례 와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.

#### 12. 감사합니다

제대초봉헌:최정신 데레사(\$100) 원승남 요셉(\$20)

최선옥 제노베파(\$60)

부활초봉헌:송돈희 요셉(\$350)

#### ◉ 행렬용 촛대 봉헌 신청 받습니다 (사무실)

촛 대: \$1,500/2개 (사순시기 등 사용 예정) **감사합니다:** 익명(\$300)

#### ◉ 제단체 연령 조정

지난 사목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단체 연령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. 제단체에서는 규정에 맞게 회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안나회, 요셉회 : 70세 이상.
- 대건안드레아회, 성모회 : 60~69세
- 하상바오로회, 아빌라 데레사회 : 50~59세
- 안드레아회. 정혜엘리사벳회 : 49세 이하

#### ◉ 새로운 단원을 모집(환영) 합니다.

**문의: 성가대** (단장: 진엘리사) **복사단** (단장: 장현철 엘리야)

#### 화답송 주님을 찬미하여 라 주 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전례봉사 연중 제5주일 (2/4) 연중 제6주일 (2/11) 사순 제1주일 (2/18) 사순 제2주일 (2/25) 박문교 / 정미정 이주연 / 김선영 김선식 / 이주연 미사해설 정미정 / 최금주 오은수 임가빈 황건영 정준영 지마리 정준영 복 송돈희 최준우 사 송돈희 박지은 윤지현 곽유경 김병수 윤지현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샛별Pr 천상의모후Pr. 샛별Pr.

주보제작: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(909-573-5322) E-Mail:bongjun5322@gmail.com

## Samurai Sushi

12251 Folsom Blvd. Rancho Cordova,CA95742 신영후(토마스) 916-353-1112

samuraisushisac.com

## 1.2.3 Auto Body 정비

11357 Pyrites Way Suite B1,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(호영베드로) 916-366-0123

##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

사업/상해/자동차/집/ 건강/생명보험/연금 9545 Folsom Blvd # 1 Sacramento,CA 95827 916-362-3300 (0) 916-475-3770 (C)

## 최병엽공인회계사

Byungyeub Choi CPA & Associates Inc.

9521Folsom Blvd.suit P Sacramento,CA 95827 (Butterfield Plaza#P)

> 최병엽(바오로) 916-363-2345

## 에어컨 수리

Air Conditioner Service & Repair

배용환(율리아노) 916-548-3278 916-362-3300

## 클라라 가정양로원

(Clara Care Home) 4665 Freeway Cir. Sacramento, CA 95841

> 김재열(스테파노) 김옥기(클 라 라) 530-771-7715 530-204-8878

## **Angel Garden Care Home**

9873 Traveler Court Elk Grove, CA 95624 조영숙(도미니카) 530-886-9529 ycho11281128@gmail.com

- ▶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
- ▶ 구인광고
-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풀타임.파트타임 가능/ 시간당 \$20 / IRA가능(희망자)

# Chicken W

#1 KOREAN CHICKEN 모임/생일 Catering 주문 환영



916-840-5535 조현화(헬레나)916-728-8585 KP market, #411

## 서은미 부동산



950 Iron Point Rd., #170 Folsom, CA 95630 서은미(안나) 916-600-1936

## 메리서 부동산·융자·재정서비스

- · 주택/상가/상업/부동산관리 및 자문
- · 주택융자/SBA/Commercial/Land
- · 은퇴-자산-재무설계/재산관리

서주연(마리아)

916-271-3671 · maryseo@gmail.cpm CALIFORNIA . GEORGIA . HAWAII

#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

(새크라멘토교구 직영)

2110 Broadway Sacramento, CA95818

한국세션 담당 Beda 916-840-2156 279-799-8572

## **Hair Story Salon**

9723 Folsom Blvd. #B Sacramento,CA 95827

> 헤어디자이너 정 린(클라라) 916-342-7072

### 장의사 W.F.Gormley&Sons Funeral Home

Family Owned Since 1897
Preneed Services
Available
916-443-6513

www.gormleyandsons.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

## 스마일마켓 쿠폰판매

※ 판매금액의 15%본당 재정 수입

여성부장 유정임 가브리엘라 916-996-5703

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-201-5630

# 양업토마스공동체 (리노공소) 후원

고추장.된장.도토리 국수.참기름.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. 공소부장(916-591-0179)

##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

입금은행: Wells Fargo

은행주소: 9500 Micron Ave Suite 130

예금주: Pastor of St Jeong-Hae Elizabeth

계좌번호(Account#): 360 184 1897

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,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 입니다.